

## 윌리엄 포크너의 후기 작품 세계에 나타난 ‘포기’ 주제 연구\*

신 영 현  
(한성대학교)

Shin, Younghun. "A Study on Renunciation in the Later Works of William Faulkner."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1 (2019): 107-128. The literary world of William Faulkner is divided into two periods. The latter half of his literary career is distinctly separate from his previous one in terms of its themes and techniques. Renunciation is the most important theme in his later work. Bayard Sartoris renounces to take his revenge on his enemy who had killed his father in a duel. Instead, he decides to confront him unarmed at the risk of his own life. Bayard's dauntless courage and firm conviction of nonviolence ends up achieving the respect of the community. Similarly, Ike McCaslin passes up inheriting McCaslin plantation which has been tainted with exploitation and incest. His renunciation has been disparaged as an irresponsible escape and negligence of duty. His resolution, however, could be a profound form of activism which follows the kenosis of Christ who was willing to divest himself of his own divinity and take the form of a servant for the human race. Christ even laid down his own life to redeem sinners. Ike likewise gives up his own right over the property and lives as a carpenter for the rest of his life. The renunciation of both protagonists sheds light on the reason why Faulkner adopted a more positive outlook on human destiny in his later life. (Hansung University)

**Key Words:** Bayard Sartoris, Ike McCaslin, renunciation, revenge, kenosis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I. 서론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는 노벨상 수상 작가로서 흔히 미국 모더니즘의 대표 주자로 간주된다. 특히 그의 대표작들인 『음향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 1929)와 『내 누워 죽어갈 때』(*As I Lay Dying*, 1930) 등의 전기작들은 의식의 흐름이라는 대표적인 모더니즘 기법이 두드러지게 사용되면서, 언어에 대한 불신이나 의사소통의 부재, 소외 등의 주제를 예술성 있게 구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를 미국 모더니즘의 대표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모세야 내려가라』(*Go Down, Moses*, 1940)를 위시한 일군의 작품들은 그 주제나 기법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작품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간단히 말하자면, 의식의 흐름이나 내면독백 같은 대표적인 모더니즘 기법의 사용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대신 탐정소설, 성장소설 등의 전통적인 소설 양식을 전유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들려주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간단히 말해 이는 보여주기(showing)에서 이야기하기(telling)로의 전환이라는 명제로 요약된다(Towner 17).

사실 포크너의 작품 세계가 전기와 후기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동의하면서도 어느 시점부터 양자를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다만 『모세야 내려가라』가 후기작에 속한다는 데에는 거의 모든 비평가들이 동의한다.<sup>1</sup> 이런 관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작품이 바로 『패배하지 않는 자』(*The Unvanquished*, 1938)이다. 타우너(Theresa M. Towner)는 『모세야 내려가라』 이후를 후기작으로 분류하면서도, 후기 포크너의 형식상의 실험은 기존에 발표한 여섯 개의 단편을 『패배하지 않는 자』로 개작하면서 시작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21, 22). 이 작품은 후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야 내려가라』와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 작품이다. 첫째는 기

<sup>1</sup> 포크너의 작품세계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한편의 논문의 주제가 될 법한 논제이므로 본 논문에서 이를 상세하게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후기로 갈수록 전기의 부정적인 세계관에서 보다 긍정적인 세계관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전기에는 스타일과 수사에 치중하면서 시점을 주요한 구조적 장치로 사용한 반면 후기의 포크너는 성장소설, 탐정소설, 전쟁소설 등의 다양한 양식들을 사용해서 작가 자신의 비전을 전달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타우너는 이런 특징들이 처음 시도된 작품이 바로 『패배하지 않는 자』라고 주장한다.

존에 발표한 여러 개의 단편을 모아서 하나의 장편 소설로 개작을 했다는 점이고, 둘째, 큰 틀에서 주인공의 성장을 다루는 성장 소설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기'보다 '이야기하기'가 두드러지는 소설이라는 점이다. 이는 언어에 대한 모더니스트 특유의 불신과 이에 따른 소통의 불능이라는 초기의 비관적 전망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서 저자 자신이 발견한 비전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작가적 신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혹은 자신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필코 전달해야만 하는 메시지를 갖게 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파울러(Doreen Fowler)는 인간조건에 대한 초기의 절망적인 평가와는 달리 포크너의 후기작들에서는 인간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전망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2). 그러나 그 긍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기작의 주인공들이 작품의 클라이맥스에서 내리는 '포기'(renunciation)라는 선택이야말로 이러한 긍정적 비전의 주요 근거이자 내용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경우 그들이 내리는 포기라는 선택은 주인공의 정신적 성장을 입증해 주는 척도 내지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하 본문에서는 각각의 작품에서 주인공이 결심하는 포기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와 같은 결정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포크너가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피력한 인간 운명에 대한 낙관적 비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결론을 앞당겨 말하자면 두 명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포기의 능력이야말로 포크너가 보기에 인간 존재의 위대함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여기에 인류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 포크너가 끝까지 견지한 낙관적 비전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 II. 본 론

### 2.1 『패배하지 않는 자』의 주인공 베이어드 사토리스의 복수 포기

1938년에 발표한 중편 소설 『패배하지 않는 자』는 기존에 발표한 여섯 개의 단편들과 새로 쓴 마지막 단편을 하나로 엮은 작품이다. 단편 모음집임에도 불구하고 본 작품은 상당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단편들이 주인공 베이어드 사토리스(Bayard Sartoris)의 성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성장은 마지막 단편인 「버비나 향기」(“Odor of Verbena”)의 클라이맥스에서 이루어지는 주인공의 복수 포기에서 완결된다. 해당 장면에서 스물 네 살의 법학도인 베이어드는 자신의 아버지인 존 사토리스(John Sartoris) 대령이 동업자인 레드먼드(Redmond)와의 결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가족의 죽음에 대한 복수 이행을 요구하는 남부 공동체의 전근대적 가치와 법과 양심에 따른 문제해결이라는 자신의 근대적 신념 사이에서 베이어드는 존재론적인 갈등을 겪는다. 결국 베이어드는 비무장으로 레드먼드와 맞선 끝에 그를 마을에서 쫓아낸다. 본 작품의 나머지 단편들은 베이어드가 왜 그런 선택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조명해 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 작품과 관련된 핵심질문은 ‘왜 베이어드는 비무장으로 레드먼드를 찾아가는가?’이다.

「버비나 향기」는 남북전쟁이 끝난 소위 재건기인 1873년 10월, 법대 4학년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베이어드에게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시작된다. 소식을 접한 베이어드는 즉시 고향 집인 사토리스 농장으로 향한다. 오는 길에 베이어드는 아버지의 예전 부하였던 와이엇(George Wyatt)에게서 아버지가 레드먼드와의 정당한 결투 끝에 죽었음을 전해 듣는다. 집에 도착한 베이어드는 버비나 가지를 머리에 꽂은 채 두 자루의 결투용 권총을 들고서 자기를 기다리는 사촌 누이이자 의붓어머니인 드루질라(Drusilla)를 보게 된다. 그녀는 존 대령과 함께 남북전쟁에 참여한 동지이자 부하이며, 모든 면에서 존 대령의 가치관을 내면화한 인물로서 구 남부의 전근대적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권총을 베이어드에게 내밀면서 복수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반면 아버지의 동생인 제니 고모(Aunt Jenny)는 베이어드에게 복수 따위는 잊어버리고 마을을

떠나라고 충고한다. 밤새 고민한 끝에 베이어드는 다음날 비무장으로 레드먼드를 찾아간다. 베이어드를 향해 두 발의 총알을 발사한 레드먼드는 그 길로 곧장 도망치듯 제퍼슨을 떠난다. 결국 베이어드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복수이행이라는 남부의 전근대적 가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를 간단히 무시해버리라는 제니 고모의 개인주의적 합리주의도 아닌 제 3의 선택을 통해 사태를 해결한 것이다. 공동체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무언의 지지와 존경을 보낸다.

그렇다면 베이어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창조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인가? 몇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레드먼드와 결투에 이르게 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원인과 책임이 주로 아버지에게 있다는 판단을 베이어드가 처음부터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제 3의 동업자가 있었지만 지금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철도를 놓기 시작하기도 전에 아버지와 레드먼드 간에 생겨난 맹렬한 갈등 속에서 그 동업자와 그의 이름은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독재성과 지배 의지(철도 사업은 아버지의 아이디어였으니, 그가 먼저 철도를 생각해냈고 다음에 레드먼드를 끌어 들였다)와 레드먼드로 하여금 아버지를 참을 만큼 참게 하다가, 참다가 참다가 마침내 무언가가(의지나 용기가 아닌) 그의 내면에서 부러지게 만든(조지 와이엇의 말처럼 레드먼드는 겁쟁이가 아니었으며, 만약 그랬다면 결코 아버지는 그와 한 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레드먼드의 그 특성 간의 갈등이었다.

There had been a third partner but nobody hardly remembered his name now; he and his name both had vanished in the fury of the conflict which set up between Father and Redmond almost before they began to lay the rails, between Father's violent and ruthless dictatorialness and will to dominate (the idea was his; he did think of the railroad first and then took Redmond in) and that quality in Redmond (as George Wyatt said, he was not a coward or Father would never have teamed with him) which permitted him to stand as much as he did from Father, to bear and bear and bear until something (not his will nor his courage) broke in him. (170)

베이어드는 법을 전공하는 법대생이다.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어디인가이다. 아버지의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독재성과 지배 의지”가 동업자와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전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법학도가 그 동업자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폭력적으로 묻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는 와이엇과의 대화에서 결투의 과정이 정당했었는지를 재삼 확인하는 것에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다. 와이엇을 만나자마자 베이어드가 건넨 첫 마디는 “그것이 - 였나요?” “그는 - 당했나요?”(Was it-Was he-)이고, 이에 대한 와이엇의 대답은 “정당한 거였어. 앞쪽에서 맞았어. 레드먼드도 겁쟁이는 아니야. 존은 여느 때처럼 소매 속에 단총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을 잡지 않았고 그 총을 잡으려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어.”(It was all right. It was in front. Redmond ain't no coward. John had the derringer inside his cuff like always, but he never touched it, never made a move toward it. 176)이다.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존 대령에게 있고, 결투의 과정 또한 정당했다면 그러한 과정 끝에 이루어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정당하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애초에 베이어드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베이어드가 존 대령의 복수를 포기한 또 다른 이유로는 8년 전 종전 직전 무렵에 자신이 행한 복수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들 수 있다. 베이어드는 말 거래(horse trading) 과정에서 자신의 할머니인 밀라드 여사(Rosa Millard 일명 Granny)를 살해한 남군 패잔병 그림비(Grumby)를 수개월 간의 추적 끝에 잡아서 그를 죽이고 그의 오른팔을 잘라서 할머니의 무덤가에 걸어둔 경험이 있다. 이것이 『패배하지 않는 자』의 다섯 번째 이야기인 「복수」(“Vendée”)<sup>2</sup>의 중심 플롯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인 「사토리스 가의 접전」(“Skirmish At Sartoris”)은 이야기의 초점이 존 대령과 드루질라의 결혼식 날에 벌어진 소동에 맞춰져 있기에, 「복수」는 사실상 「버비나 향기」의 전편(pre-quel) 역할을 한다. 「복수」는 할머니 살해 시점 즉 1864년 크리스마스 며칠 전부터 이듬해인 1865년 2월 23일까지 벌어진 그림비 추적사건과 복수에 대한 기록이다. 베이어드는 어릴 적 친구이자 사

<sup>2</sup> 원래 Vendée는 프랑스 중서부에 위치한 주 이름으로, 프랑스혁명 중에 있었던 왕당파 농민 중심의 반혁명운동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들이 혁명군에 대항해 전투를 벌인 것은 남북전쟁기간 동안의 미국 남부의 투쟁과 유비를 이룬다. 이와 동시에 이 단어는 vendetta 즉 살해당한 친족에 대한 복수 의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Hinkle & McCoy 134).

토리스 집안의 노예인 링고(Ringo)와 함께 그림비 일당을 두 달 간 추적한 끝에 이듬해 2월 말경에 그림비 일당과 조우하게 된다.

거칠고 포악한 남군 패잔병 무리들을 열다섯 살짜리 소년 두 명이 물리친다는 사건 전개가 개연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해 힝클과 맥코이(James Hinkle & Robert McCoy)는 그림비의 행동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즉, 존 대령의 장모를 죽이는 실수를 범함으로써 궁지에 몰린 그림비로서는 그의 외아들마저 살해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베이어드를 살려주었다는 것을 근거로 존 대령과의 화해내지는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이 그림비의 속셈이었다는 것이다(141-2). 실제로 그림비 일당은 베이어드와 링고를 숨어서 지켜보면서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결국 그림비는 자신부터 살고보자는 계산을 한 동료들에 의해 결박된 상태로 베이어드에게 넘겨진다. 베이어드는 남부의 규범에 따라 정정당당한 결투를 통해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이행하려 하지만, 베이어드를 죽이는 순간 자신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그림비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투를 피할 궁리만 한다. 결국 그림비는 베이어드를 향해 총을 쏘는 시늉을 하고는 도망가다가 베이어드의 총에 맞아 죽는다. 베이어드와 링고는 그림비의 시체를 신고 와서 할머니가 죽임당한 목화창고의 문에 못 박아 놓고, 그의 오른 팔은 잘라서 할머니의 무덤에 걸어놓음으로써 복수를 완성한다.

그런데 베이어드에게 있어서 이 복수의 경험은 대단히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우선 정정당당한 결투를 하고 그 결과에 승복한다는 남부의 낭만적 전통과 달리 결과적으로 베이어드는 시종일관 자신을 죽이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그림비를 결투라는 형식을 빌어서 사살한 것이다. 애초에 베이어드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림비를 잡은 것도 아니었다. 그림비의 시체의 일부를 훼손해서 할머니의 무덤에 걸어놓은 행동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맞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자신의 복수경험에 대한 베이어드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드루질라와의 대화 장면이다. 존 대령이 살해되기 불과 몇 개월 전,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기 직전에 베이어드는 레드먼드를 너무 심하게 몰아 부치지 말라는 와이엇의 요청을 아버지에게 전하겠다고 드루질라에게 말한다. 이를 들은 드루질라는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이 말을 네게서 듣게 되다니? 넌 그림비를 벌써 잊어버렸니?”

“아니” 난 말했다. “난 결코 그를 잊지 않을 거야.”

“넌 결코 잊지 못할 거야.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일도 있고, 죽임 당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도 있는 법이야, 베이어드.”

“This from you? You? Have you forgotten Grumby?”

“No”, I said. “I never will forget him.”

“You never will. I wouldn’t let you. here are worse things than killing men, Bayard. There are worse things than being killed.” (172)

여기서 드루질라는 존 사토리스의 아들답지 않은 베이어드의 나약한 태도를 힐난하고 있다. 위대한 남부의 재건이라는 존 대령의 꿈을 철저히 내면화한 드루질라로서는 존 대령의 아들인 베이어드에게서 이에 대한 비판을 듣게 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다짐삼아 드루질라는 8년 전의 그림비 복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벌써 그 일을 잊어버렸느냐고 질책한다. 이에 대해 베이어드는 자신은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며 평생 그럴 것이라고 대답한다. 물론 그림비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드루질라의 다짐과 이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베이어드의 약속은 정반대의 의도를 담고 있다. 베이어드의 진의는 자신이 행한 복수 행위는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야만적 행동이었으며 자신은 아마 평생 이 부끄러운 기억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림비 살해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려는 베이어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버지에게 폭력적인 충동을 피하라는 충고임을 감안할 때, 그림비 복수 사건이 베이어드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경험으로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베이어드가 레드먼드에게 복수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그림비에게 행했던 복수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되었다는 브룩스(Cleanth Brooks)의 해석(87)은 타당하다.

베이어드의 복수 포기라는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유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베이어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요인들은 베이어드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설명해 줄 수 있어도 비폭력 상태로 원수와 맞서기로 결심한 동기는 여전히 제대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



보를 전해들은 직후부터 베이어드에게는 레드먼드에게 복수 따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식을 전해들은 후 집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번에 걸친 베이어드의 독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그 중 제퍼슨의 고향집으로 달려오는 도중에 들려주는 “이번에는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으로, 죽지는 않겠지만—난 그것을 알고 있었다—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될 사람으로서”(and now this time and maybe last time who would not die (I knew that) but who maybe forever after could never again hold up his head. 165) 이 길을 달려간다는 베이어드의 독백은 그의 결심의 내용을 너무도 분명히 말해 준다. 자신이 죽지는 않겠지만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임을 베이어드가 안다는 것은 레드먼드에 대한 복수이행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이미 분명히 섰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이처럼 확고한 결심이 변하는 계기와 과정은 무엇인가? 가장 큰 계기는 드루질라와의 대면일 것이다. 다른 단편들에서 강인하고 용감한 남부 여성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진 바 있는 드루질라는 「버비나 향기」에 와서는 거의 광인과 정상인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폭력에 대한 거의 광기에 가까운 숭배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드루질라를 보면서 베이어드는 무언가 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상복이 아닌 무도복 차림으로 베이어드를 기다리던 드루질라는 그의 손에 키스하는 순간 여성 특유의 직관으로 복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베이어드의 결심을 알아차린다. 아마도 그녀는 이 순간 그림비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는 베이어드의 진의를 불현듯 깨달았을 것이다. 결국 드루질라는 광기에 가까운 웃음 속에서 실신한 채 끌려가다시피 침실로 옮겨진다. 이 대목에서 베이어드는 참을 수 없는 구토욕구를 느낀다.

제니 고모와 나는 거기에 서 있었으며 난 곧 다시 헐떡이기 시작할 것임을 알았다. 난 구토가 시작되는 걸 느끼듯이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방안이나 집안의 공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춘분 날씨가 폐를 위해 대기 중에 숨쉴만한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 보이는 무겁고 낮은 뜨거운 하늘 아래 어느 곳에도 충분한 공기가 없는 것 같았다.

Aunt Jenny and I stood there and I knew soon that I would begin to pant. I

could feel it beginning like you feel regurgitation beginning, as though there were not enough air in the room, the house, not enough air anywhere under the heavy hot low sky where the equinox couldn't seem to accomplish, nothing in the air for breathing, for the lungs. (181)

아버지의 시신을 보게 될 때까지 참고 있던 심장의 헐떡거림을 이 순간 베이어드가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드루질라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감정이 강렬했음을 입증한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구토처럼 새어 나오는 웃음”(the laughter spilling between her fingers like vomit 181)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루질라의 광기에 가까운 웃음과 베이어드의 헐떡거림이 연결된다.

이 순간 베이어드가 느끼는 질식할 것 같은 갑갑함과 구토 욕구의 실체는 무엇인가? 아마도 그것은 복수를 이행하라는 드루질라와 무시하라는 제니 고모의 상반된 요구 중 하나를 수용함으로써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에서 오는 무게일 것이다. 이는 어느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취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베이어드가 깨달은 것이다. 비록 구 남부의 전근대적 신념과 체제 중 상당 부분은 극복되어야 할 잔재임에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한 소중히 이어가고 계승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며,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안고 가야한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무게감이다. 이를 위해 자신은 무언가를 내려놓거나 포기해야한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메스꺼움이다.

그렇다면 과연 베이어드는 무엇을 내려놓거나 포기해야만 하는가? 우선, 베이어드는 자신의 근대적 신념을 포기해야 한다. 드루질라를 만나기 전에 베이어드는 이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 이행을 단념하기로 결심한 바 있다. 이는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고 폭력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유의미한 결심이다. 그런데 베이어드는 드루질라와의 만남을 통해서 폭력이 아닌 법과 공권력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는 자신의 근대적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베이어드의 복수포기는 복수를 요구하는 공동체의 잘못된 행동규범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상위의 원칙(인명살해 금지)을 지키는 한편 공동체의 요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이를 초월하는 복합적 행위라는 브록스의 지적(89)은 설득력이 있다.

사실 베이어드가 법적인 절차에 호소했다면 이는 훨씬 베이어드에게 유리하면서도 안전한 해결방식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는 아버지인 존 대령이 베이어드에게 기대했던 바이기도 하다. 이 사건이 있기 불과 두 달 전, 베이어드가 마지막 학기를 채우기 위해 옥스퍼드로 떠나기 직전에 존 대령은 베이어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까지는 내 일에 네 도움은 필요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필요할 것이다. 난 이제 내 목표의 실질적인 부분을 다 이루었으며 거기서 네가 날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난 이 땅과 시대가 요구하는 바대로 행동했고 너 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렸고 난 너의 방패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땅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은 합병의 문제, 협잡과 필시 속임수의 문제일 것이고 이 방면에서 난 아마 무장한 갓난 아이 풀이지만 너는 법률 훈련을 받았으니 네 입장을 -우리 입장을 지켜낼 수 있을 거야. 그래, 난 내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 윤리적으로 약간의 집안 청소를 해야겠다. 그 필요성이나 목적이 어떤 것이든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난 질렸다. 내일 내가 읍내로 벤 레드먼드를 만나러 갈 때, 난 비무장으로 가겠다.”<sup>3</sup>

“I have not needed you in my affairs so far, but from now on I shall. I have now accomplished the active portion of my aims in which you could not have helped me; I acted as the land and the time demanded and you were too young for that I wished to shield you. But now the land and the time too are changing; what will follow will be a matter of consolidation, of pettifogging and doubtless chicanery in which I would be a babe in arms but in which you, trained in the law, can hold your own-our own. Yes, I have accomplished my aim, and now I shall do a little moral house-cleaning. I am tired of killing men, no matter what the necessity nor the end. Tomorrow, when I go to town and meet Ben Redmond, I shall be unarmed.” (175)

위 대목에서 존 대령은 폭력과 투쟁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던 자신의 시대가

<sup>3</sup> 위의 선언 때문에 브록스를 위시한 여러 비평가들이 존 대령이 비무장으로 레드먼드를 찾아가서 결투 끝에 죽은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시점은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 전 어느 날이었으며, 막상 레드먼드와 결투에서 죽을 당시에는 존 대령이 소매 속에 단총을 소지했다는 사실은 앞서 와이엇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끝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법과 논쟁에 의한 문제해결이 대세가 될 것이며, 베이어드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존 대령은 자기가 “윤리적으로 약간의 집안 청소”를 해야 한다고 선언하는데, 이에 대해 테일러(Nancy Taylor)는 존 대령이 ‘좋은 평판’(good name)이라는 마지막 목표를 쟁취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완성하려는 실용주의적 행태를 보인다고 해석한다. 즉 레드먼드에게 행한 자신의 비열함을 속죄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361). 이런 해석은 존 대령이 소매 속에 감춰 둔 권총을 쏘려하지 않았다는 와이엇의 언급과 맞아 떨어지면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존 대령은 법률적 지식으로 무장한 베이어드가 자신의 죽음이라는 구시대적 과제를 법과 지식이라는 근대적 무기를 사용해서 멋지게 해결함으로써 새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등장하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존 대령의 바람대로 베이어드가 자신의 신념이자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영역인 법에 의지했다라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베이어드는 자신의 신념 대신 공동체의 기대에 따라 결국 레드먼드와 대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결정에 다름 아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죽지는 않겠지만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사람”(165)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 결정을 통해 이제 베이어드는 ‘고개는 들고 다니겠지만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선택을 수용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레드먼드와 비무장으로 맞선 끝에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베이어드를 향해 주변에 모여 있던 일단의 사람들은 모자를 벗어서 인사를 한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되, 자신에 대한 타인과 공동체의 관심 또한 그 나름의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자신의 신념과 상치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으로 수용하려는 베이어드의 선택에 대한 제퍼슨 사회의 동의와 존경의 제스처인 것이다. 브룩스는 이러한 베이어드의 행동을 돈키호테적인 영웅주의라고 보면서도 동시에 남자다움(manhood)과 도덕적 책임감을 구비하는 입문의 마지막 단계라고 인정한다(84). 이런 이유에서 콕스(Leland H. Cox)는 본 작품에서 패배하지 않는 자란 일차적으로 여인들을 가리키지만 정말로 패배하지 않는 자는 바로 베이어드라고 주장한다(195).

포크너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가진 특별 문학 세미나에서 인간본성은 선보다

는 악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려내는 일에 더 재능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민, 명예, 자부심, 인내 등으로 승리할 것(prevail)이라는 신념을 피력한 바 있다(Gwynn & Blotner 5). 다만 여기서 prevail은 '살아남다'는 의미에 가까우며, 인간 본성의 선함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인간은 개선되며(improve) 따라서 모든 위기나 장애를 이겨낼 것이라는 의미라고 포크너는 부연한다(Gwynn & Blotner 6). 베이어드가 보여주는 개인적 신념의 포기와 타인에 대한 배려는 이런 맥락에서 포크너가 인간 사회에 만연한 악과 폭력, 소통의 부재, 소외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 2.2 『모세야 내려가라』의 아이크의 상속포기

『모세야 내려가라』는 일곱 개의 단편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출판한 소설이다. 여러 인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의 소설로 모으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통일성의 문제이다. 위 작품 역시 하나의 소설로서의 통일성과 완결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열쇠를 지닌 인물이 바로 다섯 번째 이야기인 「곰」(“The Bear”)의 주인공 아이크 맥캐슬린(Ike McCaslin)이다. 자칫 서로 관련 없는 산만한 이야기들의 느슨한 모음집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모세야 내려가라』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인물이 바로 아이크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다른 단편에 나오는 중심인물들이 거의 모두 아이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첫 번째 이야기인 「옛날」(“Was”)은 아이크의 아버지인 벅 맥캐슬린(Buck McCaslin)과 그의 쌍둥이 동생 버디 맥캐슬린(Buddy McCaslin)이 이웃의 여성인 미스 소폰시바(Miss Sophonsiba)와 관련해서 벌이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두 번째 단편인 「불과 벽난로」(“The Fire and The Hearth”)의 경우 아이크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흑인 노부부 루카스 뷰첨(Lucas Beauchamp)과 몰리 뷰첨(Molly Beauchamp)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루카스 또한 맥캐슬린 가문의 일원(모계쪽)이라는 점에서 아이크의 친척이다. 이런 맥락에서 포크너는 아이크와 루카스를 『모세야 내려가라』의 중심인물로 그린다고 할 수 있다(Fargnoli and Golay 98).

『모세야 내려가라』의 통일성을 구성하는 보다 중요한 특징은 그 주제적 통일성에 있다. 위 작품에 등장하는 여섯 개의 단편은 모두 ‘포기’라는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거나 아니면 이와 정반대로 포기할 줄 모르는 탐욕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예컨대 『옛날』의 주된 사건은 소폰시바라는 여성을 두고 벌이는 내기 카드 게임이다. 경기자는 소폰시바의 오빠인 후버트(Hubert)와 그들의 이웃인 쌍둥이 형제 벅(Buck) 맥캐즐린과 버디(Buddy) 맥캐즐린이다. 그런데 이 내기 경기는 누가 그녀를 차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그녀를 포기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게임이다. 즉 후버트가 이기면 소폰시바와 벅이 결혼해야 하고, 만약 지면 결혼은 없던 걸로 되는 것이다. 후버트는 벅과의 대결에서는 손쉽게 이기지만 버디와의 대결에서는 진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소폰시바는 벅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이크이다. 또한 벅과 결혼한 소폰시바가 벅과 충돌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벅이 가문의 토지와 노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벅 뿐만 아니라 버디 역시 자신의 권리인 노예를 부릴 권리를 포기하고 일종의 농업 공동체 방식으로 농장을 운영한다. 포기는 『모세야 내려가라』의 첫 이야기의 핵심 주제인 것이다.

반면 「불과 벽난로」는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금화를 포기할 줄 모르고 마침내 아내가 이혼 결심을 하게까지 만드는 루카스의 탐욕을 다룬다. 포기 주제는 『모세야 내려가라』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곰」의 주인공인 아이작 맥캐즐린(일명 아이크)에 와서 그 절정에 이른다. 성년이 된 아이크는 인종적 성적 착취와 폭력으로 점철된 맥캐즐린 가문의 유산 상속을 포기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6세 때에 가족의 ‘장부’(ledger)에 기록된 근친상간과 이종잡혼의 역사를 읽고 자기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역사에 눈을 뜬 아이크는 성년이 된 21세 때에 맥캐즐린 가문의 상속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농장을 이종 사촌인 캐스 에드먼즈(McCaslin Edmonds)에게 넘긴다. 그러나 아이크의 상속포기는 장부에서 대면한 가문의 폭력적 역사에 대한 인식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장부를 대면하기 4년 전에 당시 열 두 살 소년이던 아이크는 인디언 혼혈인 스승 샘 파더즈의 인도 아래에 대 자연을 상징하는 곰인 올드 벤(Old Ben)을 만나는 일종의 성인식을 치르는 데 이를 위해서 문명의 상징인, 총, 시계, 나침반의 ‘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총이 상징하는 ‘폭력’의 역사를 대물림하지 않

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시계가 상징하는 가문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고 자신의 대에서 종식하겠다는 결심을 상징하고, 나침반을 포기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포기의 결과는 아이크에게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는다. 마침내 그는 대자연의 상징과 조우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농장 상속포기라는 아이크의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제기한 바 있으며 그 중 다수는 부정적인 평가들이다. 예컨대 펄럭(Herbert A. Perluck)은 아이크의 선택은 현실로부터의 도피이며, 책임 회피라고 비난한다(173-201). 스투어트(David Stewart) 역시 아이크는 토지 상속거부를 통해 남부의 사회적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331). 비커리(Olga Vickery)는 아이크의 행위가 덕스러울 수는 있어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진단한다(132-3).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예컨대 루이스(R.W.B. Lewis)의 경우 아이크가 샘 파더즈(Sam Fathers)의 인도 하에 숲 속에서 겪었던 입문의 경험에서 배운 정신적인 가치를 실천했다는 측면에서 그를 영웅으로 칭송한다(306-23). 그러나 아이크의 선택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기존의 연구들은 아이크의 선택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선택의 옳고 그름을 논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작 아이크가 그러한 선택에 이르게 된 ‘동기’에는 제대로 주목하지 않거나, 심지어 전혀 엉뚱한 오해를 하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본 작품에서 묘사되는 주인공의 선택을 통해서 포크너가 제시하고자 하는 비전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오도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처음부터 포크너가 관심을 가진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아이크가 노예제 하의 여러 사회 부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크의 선택으로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아이크의 선택은 비판받아야 한다는 해석은 적어도 저자의 문제의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독해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아이크를 통해서 포크너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달리 말해 아이크는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가? 바로 이것이 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다.

아이크의 상속포기에 대한 비평가들의 부정적 평가의 원인은 대체로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군민의 절반에게 아저씨이지만 누구에게도 아버지는 아

닌”(uncle to half a county and father to no one 9) 아이크라는 「옛날」의 첫 대목이 가진 부정적 뉘앙스이다. 즉 마을의 모든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동네 아저씨이지만 정작 자신의 진짜 아들은 없다는 작품의 첫 대목이 아이크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반영한다고 다수의 평자들이 해석한다. 이에 대해 포크너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여덟 살짜리와 열 살짜리 소년들은 아이크의 아들이자, 아이였으며,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준 대상들”(Gwynn & Blotner 54)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예단을 삼가해 주기를 주문한 바 있다.

아이크(의 선택)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두 번째 이유로 비평가들이 흔히 제시하는 근거가 바로 「델타의 가을」(“Delta Autumn”)에서 등장하는 무명의 흑인 여성이 아이크에게 퍼붓는 다음의 비난이다. 아이크는 자신의 상속포기로 농장의 주인이 된 캐쓰 에드먼즈의 손자인 로스(Roth Edmonds)에게서 자신에게 찾아올 사람에게 봉투 하나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나중에 로스를 찾아 온 흑인 여성은 테렐(Terrel or Tomey’s Turl)의 자손임이 밝혀진다. 그녀는 로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안고 아이 아빠를 찾아온 것이다. 수십 년 전에 장부를 보면서 알게 된 가문의 수치스런 역사와 이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연된 것이다. 로스에게서 떠나가라는 아이크의 충고를 들은 이 흑인 여성은 “노인장, 당신은 너무 오래 살고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려서 사랑에 대해 들어본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까?”(362)라고 아이크를 비난한다. 아이크의 선택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비평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대목에 나타난 흑인 여성의 입장과 동일시해서, 아이크를 사랑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인물로 깎아내린다. 흑인 여성에게 로스가 내민 돈을 받고 복부로 돌아가라고 충고하는 아이크의 태도를 자신의 딸인 토마시나(Tomasina)를 범해서 낳은 테렐에게 천 달러의 유산을 남긴 캐로더스 맥캐슬린(Carothers McCaslin)의 처사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캐로더스와 토마시나의 관계와 로스와 흑인 여성의 관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후자에 있어서 그 관계의 본질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이크를 힐난하는 흑인 여성의 입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 흑인 여성은 배울 만큼 배운 여성으로서 선생이라는 팬찮은 직업을 가진 독립적인 여성이다. 자신의 주인이자 아버지인 캐로더스에게 유린당해서 테렐을 낳은 토마시나와는 근본적으로 입장이



다른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로스와 흑인여성의 관계를 아이크의 선택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텍스트의 내적 논리에 따른 정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요인 이외에도 아이크의 상속포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데에는 저자 자신의 부정적인 코멘트 역시 일조했다. 포크너는 특별 문학세미나에서 아이크의 선택은 현존하는 악을 보고 자기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겠노라는 선택이며 자신이 정말 바라는 타입은 현실의 잘못을 보고 무언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Gwynn & Blotner 246). 그러나 포크너는 아이크의 상속포기가 성공은 아니라도 그에게 무언가 가치 있는 것 즉 평온함(serenity)과 지혜(wisdom)는 안겨주었음을 인정한다(Gwynn & Blotner 54). 이는 포크너가 강조한 지금보다 더 나은 자기를 열망하는 진정한 인간정신의 예가 될 수 있다(Gwynn & Blotner 78). 또한 아이크의 상속포기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그와 이혼해 버리는 아이크의 아내는 사악한 인물이라고 말함으로써 아이크의 선택을 우회적으로 옹호하기도 한다(Gwynn & Blotner 275).

기존의 연구들이 아이크의 상속포기의 ‘결과’에만 주목하는 반면 정작 아이크 스스로가 제시하는 상속포기의 동기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이크가 밝히는 상속포기의 동기는 무엇인가? 일단 루이스의 설득력 있는 상속포기 논리와는 달리 정작 아이크 자신은 상속포기라는 자신의 결심을 샘 파더즈에게서 배운 가치와 연결시키지 않는다. 또한, 아이크 자신은 자신의 선택이 노예제가 가져 온 여러 사회 부조리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한 적이 없다.

자신의 유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를 캐쓰에게 설명하는 문체의 장면에서 아이크는 자신의 선택이 천륜을 어긴 조상의 가공할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임을 분명히 한다. 특히 자신의 조상인 캐로더스 맥캐즐린이 흑인 노예인 유니스(Eunice)를 범하고, 그녀에게서 난 자신의 노예 딸 토마시나마져 범해서 테렐을 낳았다는 기록과 이로 인한 유니스의 자결 사실에 아이크는 경악한다. “자기 딸을, 자기 딸을. 아니야, 아니야, 차마 그럴 수는 없어.”(206)라고 애써 부인하지만, 테렐에게 일천 달러의 유산을 남겨준 캐로더스의 유언장은 너무도 확실한 증거이다.

그런데 만약 아이크의 상속포기의 동기가 조상이 범한 죄의 속죄가 전부라면

아이크의 선택은 처음부터 설득력이 없는 변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캐로더스 맥캐즐린이 범한 흑백잡혼과 근친상간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맥캐즐린 농장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그 농장은 캐로더스의 죄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에게 상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촌(맥캐즐린 에드먼즈 즉 캐쓰)에게 농장을 넘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물론 아이크가 피해 당사자들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각고의 노력을 들여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아이크는 토마시나의 자녀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조상이 남긴 유산 이상의 금액을 전달한다. 타지에 흩어져 근근이 살아가는 토마시나의 자녀들에게 맥캐즐린 농장을 상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이크는 최선에 가까운 보상을 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크의 선택이 조상의 죄에 대한 속죄 행위에 그친다면 그 선택은 처음부터 한계를 지닌 잘못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결심하면서 캐쓰에게 들려주는 아이크의 입장에는 단순한 속죄 이상의 다른 동기가 나타난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땅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으로서 토지란 원래 신께 속한 것으로 인간이 그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신념이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 땅을 만드시고 말 못 하는 생물을 살게 하시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뒤,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의 감독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대지와 그 위에 사는 동물들을 지배하도록 종주권을 주신 겁니다. 인간이 자신이나 자손 대대로 장방형이나 사각형의 땅을 영원토록 소유할 권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형제라는 공동의 이름으로 살고, 그리하여 서로 공유하며 살아라는 공동의 재산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보상이란 그저 연민과 겸허와 관용과 인내, 그리고 양식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인간의 땀뿐이었어요.

He made the earth first and peopled it with dumb creatures, and then He created man to be His overseer on the earth and to hold Suzerainty over the earth and the animals on it in His Name, not to hold for himself and his descendants inviolable title for ever,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o the oblongs and square earth, but to hold the earth mutual and intact in the

communal anonymity of brotherhood, and all the fee He asked was pity and humility and sufferance and endurance and the sweat of his face for bread. (196)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토지 공개념 사상과 거의 일치하는 논리이다. 토지 공개념 사상 자체가 구약 성서의 희년(jubilee) 제도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서에서 자신의 상속포기의 원인을 찾는 아이크의 논리가 헨리 조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아이크가 드는 또 다른 상속포기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논리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 와서 목수라는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본받아서 자신도 자신의 권리인 맥캐즐린 농장의 상속을 포기하고 예수의 삶을 모방하여 살겠다는 결심이다. 이 결심에 따라 아이크는 제퍼슨의 어느 허름한 하숙집의 온기라곤 없는 단칸방에서 목수의 연장 가방과 엽총 한 자루를 전 재산으로 살아간다(229).

사실 이와 같은 아이크의 신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를 '케노시스'(kenosis)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 말은 '비운다'는 의미이고, 가득하다는 단어의 반대어이다(나인선 610). 이 그리스어 단어는 신약성서 “빌립보서 2:5-11에 기록된 예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나인선 610)로서 신적 본질과 영광을 ‘비우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예수의 자기 비움을 설명하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다. 김춘기는 예수가 보여준 케노시스를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하는데, 첫째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149)과, 둘째, 그리스도의 비움은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149)이라는 점과, 셋째,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150)는 점이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자신을 낮추는 자기 비하를 넘어 구체적인 복종과 관련된 것이며 그 복종의 극치는 십자가라는 것”(150)이다. 나아가서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은 3장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명령한다. 문맥상 이는 케노시스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는 권유이다. 이에 근거해서 김춘기는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와 신자의 미메시스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길”(160), 즉 기독교인의 윤리를

요약한다.

물론 ‘비운다’는 의미의 케노시스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 개념과도 어느 정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공이 비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케노시스는 비움과 채움이 변증법적으로 얽혀 있는 개념에 가깝다. 이에 대해 김춘기는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는 아무 것도 없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 공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것도 지니지 않는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득 채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12)이라고 설명한다.

아이크가 선택한 상속포기와 목수로서의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와 신자의 미메시스로 대변되는 기독교 윤리의 실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자 개인의 희생이나 권리포기의 결과로 사회 전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희생과 포기가 무의미하다고 폄하할 수 없다면, 동일한 논리로 아이크의 상속포기로 인해 인종차별이나 흑백분리(segregation)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선택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 III. 결 론

포크너의 작품세계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지며 그 주제나 기법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본문에서는 후기작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두 개의 중편 소설 『패배하지 않는 자』와 『모세야 내려가라』를 중심으로 후기작에서 가장 중요시 다루어지는 주제인 ‘포기’ 주제를 살펴보았다. 전자의 주인공 베이어드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의 포기를 통해 근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해간다. 그러나 베이어드의 포기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이 전근대적인 폭력과 무력을 통한 문제해결 대신 근대적인 법과 지식을 통한 해결이라는 자신의 신념에 따른 자연스런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다. 베이어드는 자신에게 부친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무시하는 대신 법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비무장으로 아버지의 원수와 대면하는 길을 택한다. 이는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할지언정 폭력에 호소하지는 않겠다는 도덕적 결기이자, 비록 자신이 동의하지 않지만 공동체의 기대와 요구를 존중하겠다는 각오에 다름 아니다.

아이크 맥캐즐린의 상속포기는 지금까지 여러 비평가들에 의해 폄훼되어왔다. 이는 그들이 아이크의 상속포기의 동기보다는 그 결과에 주목해서 그의 선택을 해석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크의 선택이 사회로부터의 도피라는 비판은 텍스트의 내적 논리에 근거한 올바른 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여러 비평가들이 아이크의 선택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근거로 내세우는 텍스트 내적 요소들 즉 아이크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과 로스를 찾아온 흑인 여성이 아이크에게 퍼붓는 조롱조의 힐난 역시 아이크의 선택에 대한 텍스트 자체의 부정적 평가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보다는 아이크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가 텍스트의 우선적인 관심사이며, 아이크의 상속포기는 조상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땅은 원래부터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구약 성서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본받은 실천적 행위이다. 아이크의 상속포기가 흑백차별과 인종분리라는 남부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포크너가 강조한 지금보다 더 나은 자기를 열망하는 참된 인간 정신의 예로서 정당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비록 베이어드와 아이크의 포기가 공동체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천을 통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여지를 남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 후기의 포크너가 텍스트 안팎에서 인류의 운명에 대한 낙관적 비전을 피력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베이어드와 아이크가 보여준 포기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남아있다는 통찰에서 기인한다.

## Works Cited

- Brooks, Cleanth. *William Faulkner: The Yoknapatawpha Count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P, 1963. Print.
- Cox, LeLand H. *William Faulkner: Biographical and Reference Guide*, vol 1. Detroit: Gale Research Company, 1982. Print.
- Fargnoli, Nicholas A., and Michael Golay. 2001. *William Faulkner: A to Z*. New York: Checkmark. Print.

- Faulkner, William. *Go Down, Moses*. Harmondsworth: Penguin, 1942. Print.
- \_\_\_\_\_. *The Unvanquished*.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1959. Print.
- Fowler, Doreen. *Faulkner's Changing Vision: From Outrage to Affirmation* Michigan: UMI Reasearch P, 1983. Print.
- Gwynn, Frederick L. and Joseh L. Blotner, Eds. *Faulkner in the University*. Charlottesville and London: UP of Virginia, 1959. Print.
- Hinkle, James C. & Robert McCoy. *Reading Faulkner: The Unvanquished*. Jackson: UP of Mississippi, 1995. Print.
- Kim, Choon ki. "The Relationship between Kenosis and Mimesis in Philippians." *Theology and Ministry* 33 (2010): 139-62. Print.  
[김춘기. 「빌립보서에 나타난 kenosis와 mimesis의 관계성」. 『신학과 목회』 33 (2010): 139-162.]
- Lewis, R. W. B. "The Hero in the New World: William Faulkner's 'The Bear'." *Bear, Man, & God*. Francis Lee Utley Ed. New York: Random House, 1964. Print.
- Na, In sun. "A Study of Communal Relationship's Formation in Terms of Kenosis." *Studies in Philosopy East-West* 78 (2015): 603-625. Print.  
[나인선. 「케노시스를 통한 공동체-관계형성에 관한 연구」. 『동서철학연구』 78 (2015): 603-625.]
- Perluck, Herbert A. "'The Bear': An Unromantic Reading." *Religious Perspectives in Faulkner's Fiction*. J. Robert Barth. Ed. Notre Dame: U of Notre Dame P, 1972. Print.
- Stewart, David. "The Purpose of Faulkner's Ike." *Bear, man & God*. Francis Lee Utley Eds. New York: Random House, 1964. Print.
- Taylor, Nancy Dew. "'Moral housecleaning' and Colonel Sartoris's Dream", *Mississippi Quarterly* 37.3 (1984): 353-364. Print.
- Towner, Theresa Mary. "*A World Unsuspected*": *Story as Structure, Telling as Theme in Faulkner's Later Novels*. Ph. D. diss. U of Virginia, 1990. Print.
- Vickery, Olga W. *The Novels of William Faulkner*.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959. Print.

신영현 (한성대학교/교수)

주소: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17 한성대학교 교양교육원

이메일: yhshin@hansung.co.kr